

문화

작품 지적해주는 우리는 서로에게 첫 독자

■ 광주 출신 쌍둥이 자매 소설가 은진·희진씨

‘그녀의 집은 어디인가’·‘옷의 시간들’ 동시 출간

최근 각각 새 장편소설 ‘그녀의 집은 어디인가’와 ‘옷의 시간들’(자음과모음 펴냄)을 동시에 출간한 광주 출신 일란성 쌍둥이 자매 소설가 은진(본명 김은진·35)·희진씨를 4일 충장로 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금도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며 소설을 쓴다는 그녀들은 일부러 맞춘 듯 같은 계열의 색깔이 다른 셔츠를 입고 있었다.

“싱크로율(일치율) 95% 정도 되

죠. 똑같은 복제인간이 다른 소설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희진)

광산구 도산동 아파트에 살며 인니는 방, 동생은 거실의 각자 자리에서 작업한다는 이들은 때로는 “따따닥” 자판 소리가 요란스러워 다른 적도 있지만 서로 동료로, 경쟁자로 생각하며 일한다고 말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서로 첫 독자가 된다는 자매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지적받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 좋지만 누가 더 잘 쓰나 비교하는 주위의 시선이 조금은 어색하다”고 말한다.

두 소설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여 동안 인터넷 웹진 ‘인터넷파크’에서 북&[엔]에 동시에 연재됐다. 출간했다. 현재 당시에도 조회 수와 댓글 수가 비교되면서 묘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은진씨는 200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소설집 ‘기친 실험실’과 장편 ‘엘리스의 생활방식’, ‘아무도 편하지 않다’ 등을 펴냈다. 희진씨는 2007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장편 소설 ‘고양이호텔’을 내놨다.

동단은 동생보다 3년 빨랐지만, 전남대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은진씨가 소설가가 된 것은 희진씨의 영향이 컸다. 목포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희진씨가 과제로 소설을 쓰던 중 옆에 있던 은진씨에게 한 번 써보라고 권한 것이 자매 소설가 탄생의 계기가 됐다.

“제가 먼저 등단했지만 동생도 등단하리라 믿었고, 그래서 필명의 성을 장씨로 바꿨어요. 문장(文章)의 ‘장’이거나 장편소설의 ‘장(長)이죠. 작가로 길게 가자, 장편을 잘 쓰자는 뜻이요.”(은진)

그녀들이 수다처럼 쏟아내는 작품 이야기는 같은 듯 다른 듯 묘한 매력력을 풍겼다.

은진씨의 이번 소설 ‘그녀의 집은 어디인가’는 전기와 물만 먹고 사는 여자 제이가 옥탑방에 혼자 사는 열쇠공 남자와 와이의 집에 숨어들면서 시작된다. 와이는 무작정 집에 들어온 여자를 늘 자신의 여자를 빼앗겼던 옛 친구 케이에게 떠넘기려 한다. 세 사람이 제이의 집을 찾는 과정을 통해 소설은 이해와 소통에 대해 말한다.

은진씨는 “인터넷에서 빈방에 한 여자가 전구를 든 사진을 보고 전기를 먹고 사는 여자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희진씨의 ‘옷의 시간들’은 도서관 사서인 주인공 오주가 2년간 만난 남자친구가 떠나고 세탁기마저 고장 나면서 벌어지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다. 밀린 빨래 때문에 찾은 빨래방에서 만난 개성 있는 여러 인물을 통해 소설은 만남과 이별을 경쾌하게 그린다.

희진씨는 “어느 날 새벽에 밤길을 가는데 상가에 커진 불빛이 고독하게 느껴졌다”며 “낮선 사람들이 모이는 24시간 무인 빨래방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그럴듯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서로의 장점에 대해 묻자 은진씨는 “재(희진)는 에피소드를 이끌어가는 기술이 뛰어나다. 대사로 신선하고 유머러스하다. 주인공의 기질이나 성격을 표현하는 방법은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희진씨는 “은진은 나보다 문장과 구상이 더 단정하고 맛깔스럽다. 대화체는 따라갈 수 없다”고 거들었다.

앞으로도 이번처럼 동시에 소설을 내겠다는 물음에 자매는 약속이 나한 듯 ‘네버’라고 말한다.

희진씨는 “이슈가 되는 점은 좋지 않아요. 둘을 비교하는 시선이 부담스럽다”며 “각자의 일정에 따라 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작품을 내고 나면 공황 상태에 빠진다면서도 습관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뭐가 쓰고 있다는 그녀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환상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을 주로 냈으니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로 쓰려고요. 시대도 좀 뒤로 당겨려고요.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구상중이에요.”(은진)

“환상성을 더 가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심리묘사의 자질을 살려 근사한 심리타일러물을 쓰려고요. 조만간 소설집도 나올 겁니다.”(희진)

소설만 쓰고 사는 아담한 이층집을 갖는 게 꿈이라는 은진씨. 글 쓰는 시간이 아까워 친구도 잘 만나지 않는다는 희진씨. 결혼생각도 별로 없다는 이 자매를 떼어놓기란 당분간 어려울 듯 보였다.



쌍둥이 자매 소설가 은진씨와 희진(오른쪽)씨가 4일 충장서점에서 자신의 책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각조각 화선지로 산세를 살리다

설박 개인전, 16일까지 금호갤러리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는 오는 16일까지 젊은 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영아티스트 전시 공모’ 선정 작가 설박(본명 박설)씨의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설박씨는 ‘어떤 풍경’을 주제로 화선지에 먹을 먹인 뒤 종이탈을 만들 듯 다시 그 종이를 찢어서 캔버스에 붙인 이색 작품을 선보인다.

먹의 농담을 이용해 전통 산수와 부갑법을 이용해 형태가 왜곡된 산수를 한 화면에서 그려 넣었다. 이를 통해 산맥의 입체적인 요소를 극대화했다.

설박씨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규칙적이지 않고 무자비하고 거칠게 그려진 화선지 조각조각을 차곡차곡 쌓으며 산세를 만들어 가며 나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맞추려 노력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과 흡사하다”라고 말했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나온 뒤 동상이몽전, 광주비엔날레기념특별기획 디지털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편 설박씨는 참새 연작을 선보이고 있는 문인화가 박태후씨의 딸이기도 하다. 문의 062-360-843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풍경’

제 56회 호남예술제 음악 입상자

국악	▲동상	◇가야금 병창 단체 초등부	23 김지혜(신광3)	
<심사위원> 김동현(광주교대 교수) 서담(전남도립대 교수) ◇판소리 합창 초등부 ▲금상 김성재의 30명(광주봉주3) ◇가야금,타악 단체 초등부 ▲금상 1 김미희의 8명(광주송원6) ▲은상 2 양은지의 20명(광양가6) ◇해금 초등부 1, 2학년 ▲은상 1 정하은(여도2) ◇해금 초등부 3, 4학년 ▲동상 1 정은성(순천송산3) ◇해금 초등부 5, 6학년 ▲은상 2 정재원(순천송산6) ▲동상 1 강유진(신기6) ◇해금 중등부 ▲금상 3 손민주(여수안산3) ▲동상 1 배지윤(대성여자3) 2 나하은(운리3) ◇설장구 중등부 ▲금상 1 안다인(여천3) ▲은상 1 양민주(완도여자1) ◇피리 중등부	1 조혜진(금구3) 2 방예성(광주경신3) ◇설장구 고등부 ▲은상 1 김다현(삼일여자3) ◇가야금 산조 창작 초등부 1, 2학년 ▲은상 1 장아름(월봉2) ◇가야금 산조 창작 초등부 3, 4학년 ▲은상 1 신자민(월봉3) ◇가야금 산조 초등부 5, 6학년 ▲은상 1 이승욱(영광중앙6) 2 이민주(광양가어6) ◇가야금 산조 중등부 ▲은상 2 손지우(신창2) ▲동상 1 김예슬(비어1) ◇가야금 병창 초등부 3, 4학년 ▲금상 1 박혜원(태봉3) ▲은상 4 진예린(광주송원4) ▲동상 2 정세벽(진월4) ◇가야금 병창 초등부 5, 6학년 ▲금상 1 안다인(여천3) ▲은상 1 정다슬(진월5) ▲은상 2 한예지(진월5)	5 주다인의 6명(관산5~6) ▲금상 4 양진경의 10명(광주봉주6) ▲은상 1 김은서의 5명(광주송원6) 2 정다슬의 6명(진월3~5) ▲동상 3 한나영의 11명(광양제철4~6) ◇가야금 병창 중등부 ▲금상 1 김희영(광주동신여자3) ◇가야금 병창 고등부 ▲동상 1 박지연(별교2)	27 강선주(영산포여자3) ▲동상 8 김예지(신기1) 12 정서현(동아여자1) 18 신지유(광주경신1) 24 임가나(신창3) 28 김경렬(성지송학3) 31 정은영(대성여자3) ◇고등부 11 장석준(광주예술2) ▲금상 13 유슬지(전주예술2) 19 최윤나(광주예술2) 21 정태희(전남예술1) 38 박지영(광주예술3) 36 임소영(설월여자3) ▲은상 5 서동은(전주예술2) 20 조주은(여수중앙여자2) 22 최진영(광주예술2) 34 신지애(순천매산여자3) 37 이규리(순천팔마3) 44 이셀(광주예술3) ▲동상 16 윤경선(광주예술2) 24 손다희(광주예술1) 32 윤세희(광주예술3) 35 김주연(광주예술3) 41 권단비(광주예술3) 42 김하영(순천강남여자3)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 인물사진 2매를 5월 12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 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스킬과 맘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가격 파괴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 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원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